[서울신문 2011 신춘문예-희곡 당선작] 아빠들의 소꿉놀이/오세혁

#3

불이 켜지면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놀이터에 서 있다. 그녀는 양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다.

단발 **(냉랭하게)** 여보, 솔직히 말 안 하면 나, 집 나갈 거야…… 짤렸지?
>>**>>광대와 턱을 활용하여 해당 대사를 읽어주세요.**

그네 위에 주저앉는다. 다시 벌떡 일어난다.

단발 **(울먹이며)** 당신 나 죽는 꼴 보고 싶어? 빨리 말해? 짤렸지?
**>>미간과 왼쪽 입꼬리를 활용하여 해당 대사를 읽어주세요.**

그네 위에 주저앉는다. 다시 벌떡 일어난다.

단발 **(화통하게)** 호호호호! 괜찮아 여보! 딱 보니까, 짤렸네? 호호호호!!
**>>눈꼬리와 코를 활용하여 해당 대사를 읽어주세요.**

힘없이 주저앉는 단발머리.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차분하게 독백을 시작한다. 단발머리가 독백을 하는 동안 파마머리를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온다. 그러고는 옆 그네에 앉아 벼룩신문을 보기 시작한다.

단발 (이성적으로) 여보, 나 당신과 지금까지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. 당신도 알겠지만 우린 부부야. 부부가 뭔데? 비밀이 없는 게 부부야. 내가 열을 셀 동안 당신이 끝까지 비밀을 말 안 해준다면 나……집 나갈 거야. 이게 당신의 마지막 기회야. (눈을 감고) 하나, 둘, 셋, 넷…….
**>>해당 부분 연기는 자유롭게 해주세요.**